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김세*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UPM)	기간	2016. 6. 25(토) ~ 7. 23(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수빅에 위치한 Times SLC에서 한달동안 생활하였습니다. 시설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급식실, 세탁실, 수영장 등이 있었고 급식은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빨래도 해주셔서 편했습니다. 처음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는 벌레 때문에 무서웠지만 지내다보니 적응이 되어서 괜찮았습니다. 학원 바로 앞에 버스가 있기 때문에 시내로 외출하는 것도 편리했습니다.
수업	오전 8시에 수업이 시작하여 오후 5시까지 수업이 진행됩니다. 50분을 수업하고 10분씩 쉬었습니다. 1대1수업과 그룹수업을 연달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시간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레벨테스트 후에 그룹이 짜여졌기 때문에 비슷한 실력의 친구들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대1수업이 선생님과 말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룹수업보다 1대1수업이 스피킹 능력향상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룹수업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영어로 토론하는 형식이어서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숙제는 선생님마다 다른데 거의 배운 주제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한 단락 정도로 쓰는 숙제나 리딩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써오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선생님들이 모두 열정적하시고 친절하셔서 좋았습니다.
Activity	저희가 갔을 땐 우기였기 때문에 셋째 주 주말에는 액티비티를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한 액티비티는 수빅투어, 요트, 카마얀비치, 고아원 방문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요트투어는 처음 경험해보아서 재미있었고 한국에서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액티비티를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우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엄청 덥지는 않았습니다. 비는 자주 왔고 한 번 올 때는 정말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집니다. 우기에는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	수빅은 어딜가나 가드가 소지품검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필리핀 오기 전에는 치안문제로 엄청 걱정을 하였는데 수빅은 안전합니다. 밤에도 여럿이서만 다닌다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숙소	숙소시설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살다보면 적응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벌레와 도마뱀이 많습니다. 벌레가 나오면 2층에 가서 매니저 분들에게 잡아달라고 하면 잡아주십니다.
식사	평일에는 거의 학원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음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한식자격증이 있나 생각을 할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주말에는 밖에서 사먹었는데 너무 현지음식만 아니면 맛있었습니다.
교통	학원 바로 앞에 FB라는 버스 비슷한 차가 10분 정도의 한 번씩 오는데 13페소로 매우 저렴합니다. 학원으로 돌아올 때는 택시를 탔는데 저희는 6명에서 150페소가 나왔고 1인당 25페소이기 때문에 택시 또한 저렴합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여행자보험,유학허가증,교재비,전기세,시설관리비,공항세	766,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생활비	300,000	식비 및 기타활동 비용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저는 환전을 30만원 해갔는데 저는 생활하기에 괜찮았습니다. 기념품을 많이 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기념품을 많이 산 친구들을 보면 40~50만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돈이 조금 남았는데 다시 환전하면 얼마 나오지 않아 돈을 다 쓰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쉬운 것은 선생님들의 선물을 한국에서 미리 사오지 못 한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돈으로 선생님들의 선물을 샀습니다. 하지만 미리 한국에서 의미있는 선물을 가지고 오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민한 사람들은 물을 조심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물갈이를 겪었습니다. 음식점을 갈 때 얼음은 빼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얼음에서 수돗물 맛이 나고 선생님들도 서비스로 나오는 물이나 얼음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캔음료를 시켜먹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은 덥지만 평일의 대부분은 학원에서 지내기 때문에 에어컨으로 인해 많이 춥습니다. 긴팔은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이가 크기 때문에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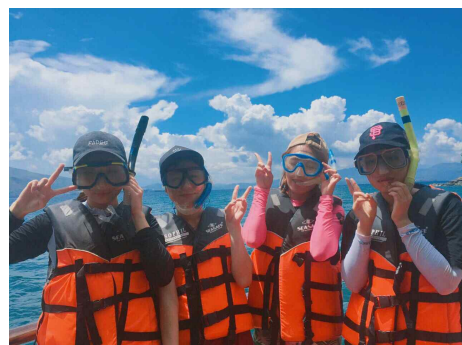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4주라는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짧기 때문에 영어실력이 향상할 것이라는 기대는 없었지만 저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조금 받았지만 수업자체도 재미있고 선생님들도 너무 좋으셔서 4주 동안 정말 즐거웠습니다. 필리핀에서 경험했던 모든 추억들 중에 저는 선생님들과의 추억이 가장 좋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정이 많으시고 배려심도 깊으시고 재밌으셔서 헤어질 때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카톡 친구를 맺어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오래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영어실력이 생각보다 많이 늘진 않았지만 SLC에서 같이 지냈던 사람들과 필리핀에서의 생활은 잊지 못 할 것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요트에서 단체사진



스노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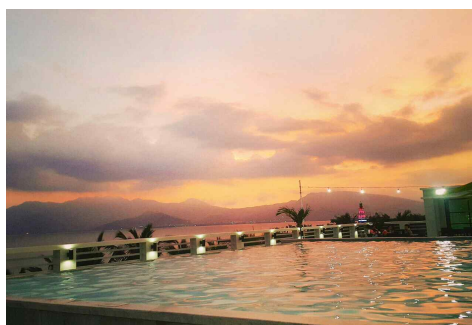
카마얀비치에서 단체사진



고아원 방문



선생님들과 저녁식사



테라스호텔 수영장